

2020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코로나19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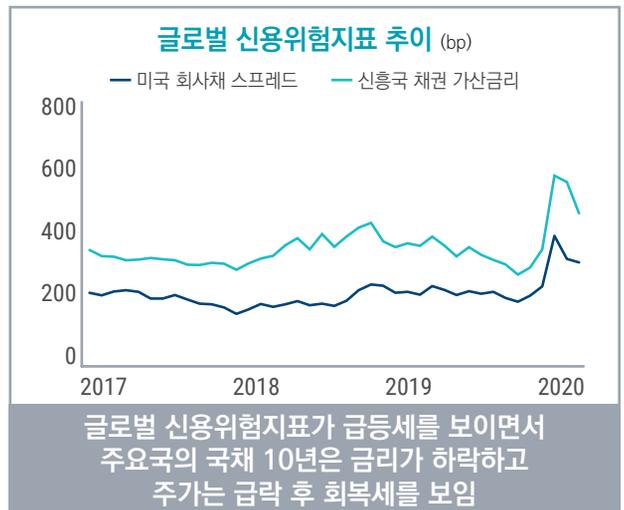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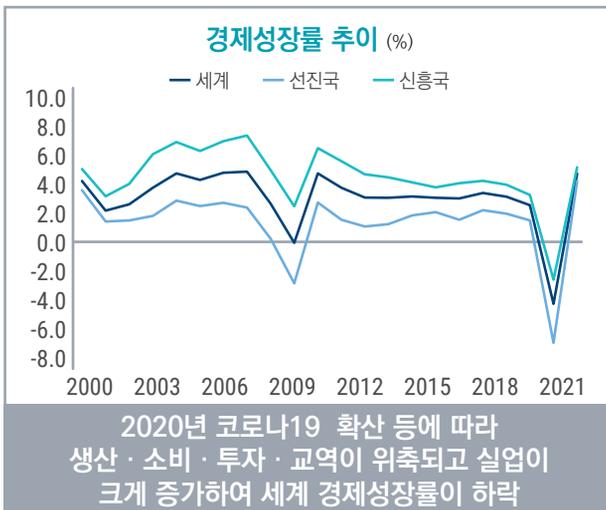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고는 코로나19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주요국 경제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거시경제·재정 지표를 점검한 결과, 주요국에서 코로나19 이후 주요 경제지표들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했음에도 민간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상승했으나 각국의 정책 및 산업구조에 따라 상승 폭에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이 실시되었으나, 화폐유통속도의 감소로 정책효과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국채 실효이자율이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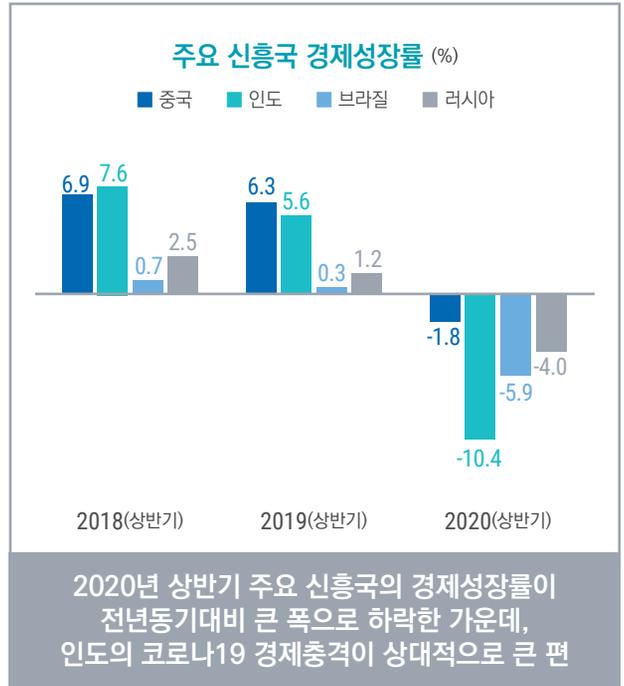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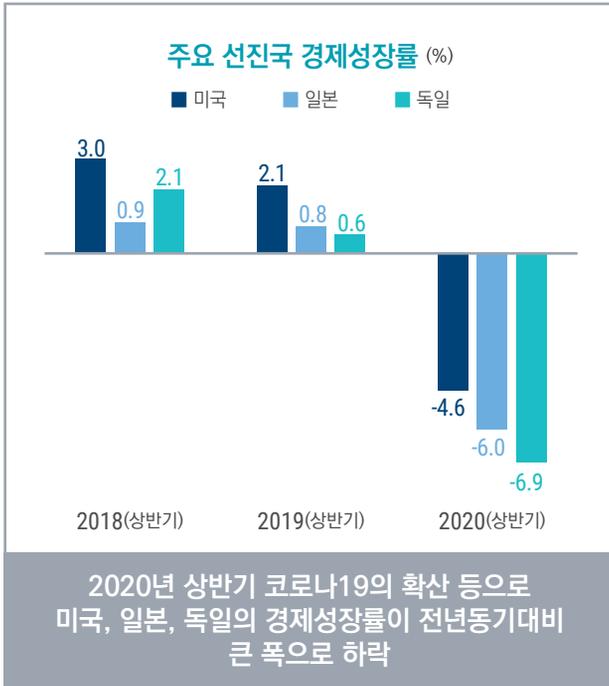
I. 세계경제 환경

IMF는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9년에 비해 7.2%p 하락한 -4.4%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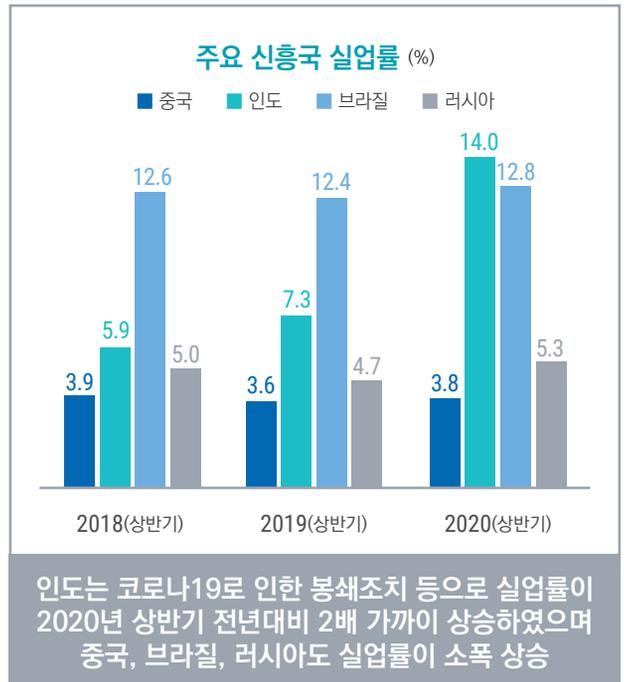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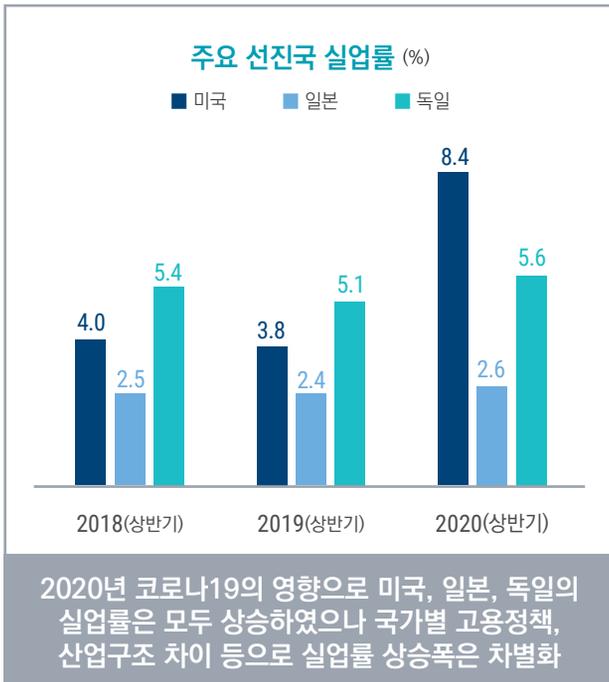


II. 선진국·신흥국 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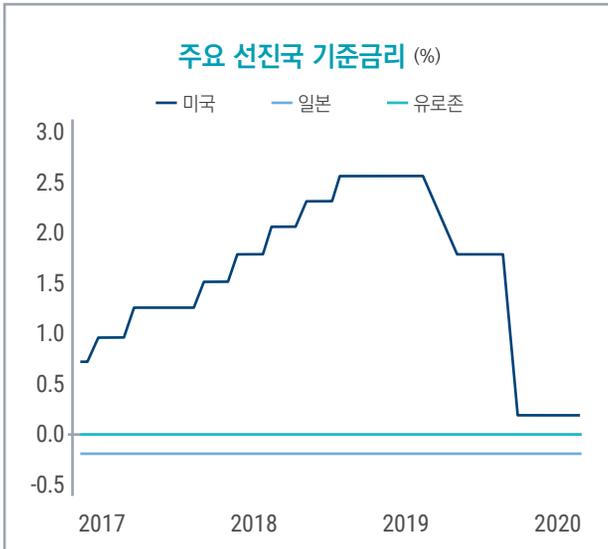
1. 주요국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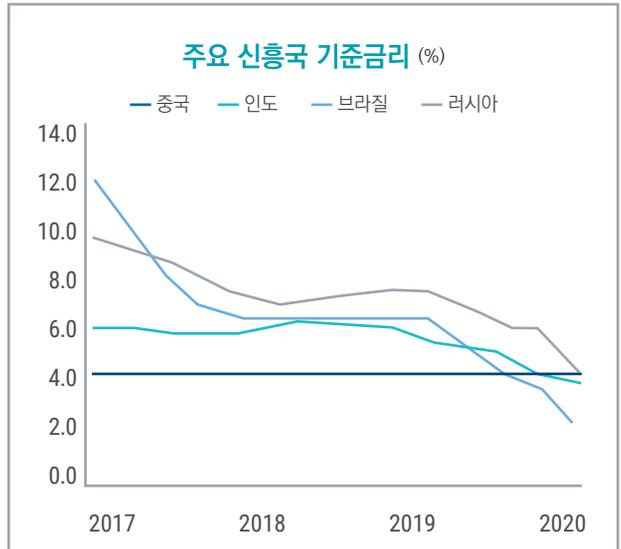
2. 주요국 실업률



3. 주요국 기준금리



미국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2차례에 걸쳐 1.75%에서 0.25%로 인하하였으며 유로존, 일본은 각각 0%, -0.1%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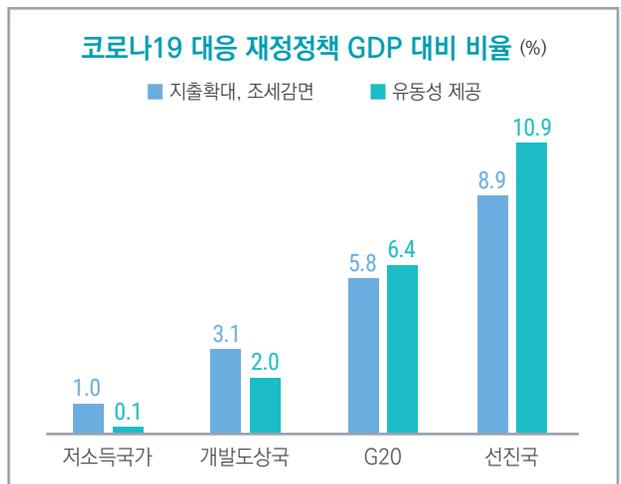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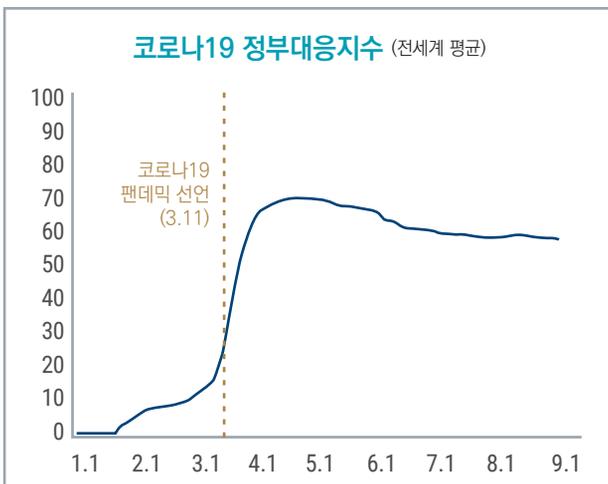


중국의 기준금리는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인도, 브라질, 러시아는 2020년 코로나19 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

Ⅲ. 주요 경제정책 국제비교분석

1.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정책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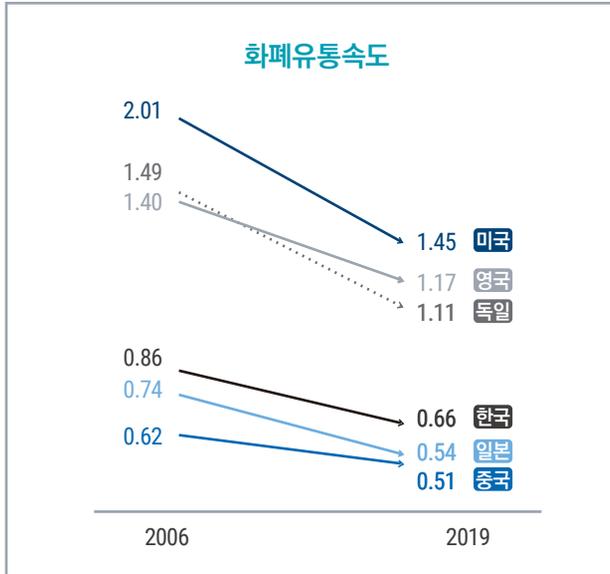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정·통화금융정책 조항이 실시되는 등 정부 정책대응 수준이 상승 재정준칙 등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선진국일수록 유동성 제공 정책의 비중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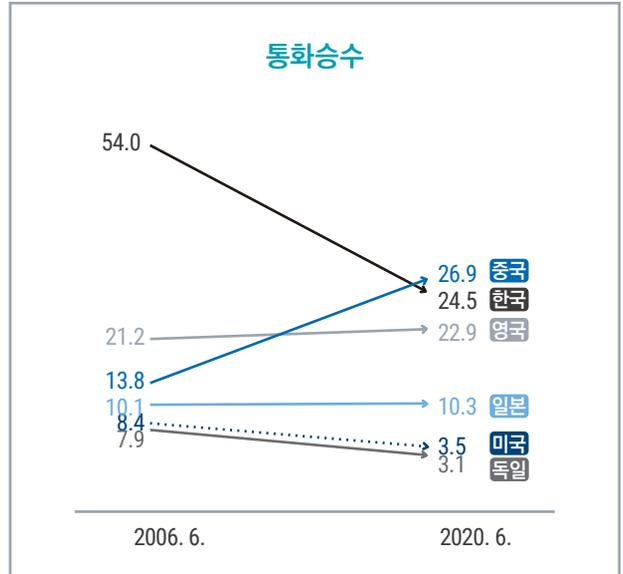
* 정부대응지수 : 이동제한, 보건조치, 경제적 지원 등의 정부대응을 0~100의 지수로 변환(옥스퍼드 대학교)

2. 통화정책 기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주요국들에서 화폐유통속도 감소 추세가 지속
 통화승수의 경우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에 비하여 승수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



*화폐유통속도 = 명목GDP / 통화량(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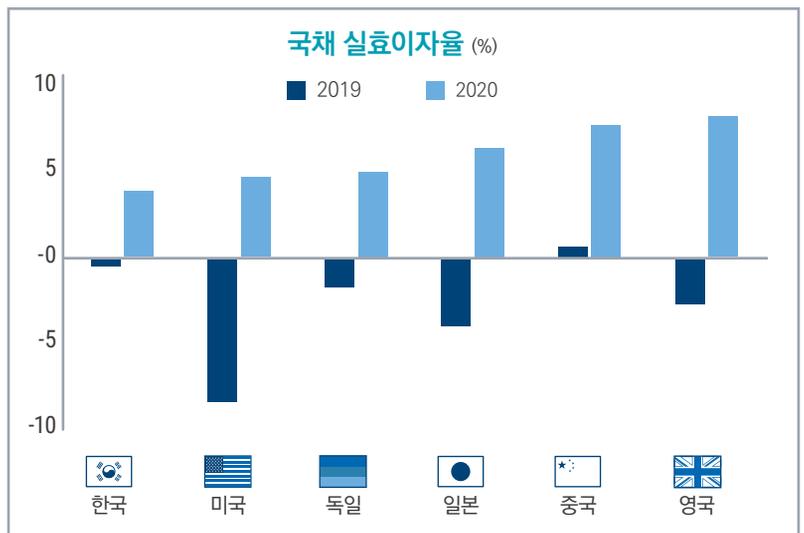


*통화승수 = 광의통화(M2) / 협의통화(M0)

3. 코로나19가 주요국 재정에 미친 영향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
 경제성장률이 국채 이자부담률보다 크게 하락함에 따라 국채 실효이자율은 상승

- 국채 실효이자율이 마이너스(-)이면, 정부부채비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 존재
- 코로나19 전후로 주요국 국채 실효이자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요국 재정 여력이 상당한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제성장률 제고, 국채 차환발행 등을 통해 국채 실효이자율을 낮추려는 노력 필요



*국채 실효이자율: 국채 이자부담률(=이자지급액/잔액 - 1)에서 명목경제성장률을 차감하여 추정